《페루 방도호 허성령 선교사 22 년 1 월 기도편지 》

●《 페루가 3 천 3 백만명중 세계 5 위로 인구수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의료가 열악하여 후진국 중의 후진국적 치료와 방역 대안으로 안타까운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성탄절과 새해에 섬기시는 교회의 당회와 선교부 및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더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에 문안 인사와 함께

섬기시는 교회가 더 큰 복을 받아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2022 년도 새해를 여는 희망이 잠시 일어나는 듯했지만 페루엔 연휴로 인하여 시장이 마비되다싶이 수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중 리마 중심 시장에서 불이 나고 또 지방 짐보떼 시장에서 불이 나, 난민들이 강 주변으로 천막을 치며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역이 안된 상황에
오미크론 코로나 전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 제 3 코로나 비상시기로 페루 전체가 불편한 분위기여서 리마와 다른 도시에 통행금지가 발표되어 비상 시간 제한 구역을 선포하고 경계 제한에 긴장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 감사하게도《이미 9 대  산소 발생기가 지부 코디들로 인해 배치가 되어지고 있는 진행 과정에 초교파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산소 발생기가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의 연속성으로 여전히 저희 선교지 자체의 75 결손 가정을 돌보고 100 여 목회자의 현지 지도자를 돌보고 있는데 여러 준비를 철처히 함으로

5K 길거리 전도와 긍휼사역의 선교 훈련으로 단기선교팀을 받을수 있도록 비자관련 섬김사역의 긍정적 방법도 고려중이오니 기도 부탁합니다 》

●고맙게도《현지 성도들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 2 층에 교실을 짓기 위해 헌금을 모으는데  2 천만원 자금 중 10 분지 일인 2 백만원도 아직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2 백만원 헌금할 10 교회나  10 명의 성도가 있다면 2 층을 세울 수 있기에 간절히 기도로 호소 중인바,

몇몇 교회와 개인이 씨드머니로 총회 선교부로 보내고 있으니 감사드리며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새해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

●《세계 선교의 거점지역중의 하나인  문화발상지인 잉카 문화의 중심지인 페루의 지교회의 2 층건축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목적헌금과 생활비를 책정할 때 페루 사역을 깊이 기도하며 고려해주시길 간청합니다 》

●《22 년도엔 산보라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전도 전문학교와 선교리드십을 통해 가정과 지역을 중심으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선교훈련학교를 운영하여

집중적 훈련과  개별적 적용을 하게 하여 4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섬겨나갈 것인즉,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임을 알고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와 라틴 위기관리 국제코디로서 돌보는 사역을 통해

아메리카 라틴 KPM 지역장으로 연합과 돌봄 사역을 중점으로 섬겨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도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께 칭찬 받는 한해가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